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사슴을 말(馬)이라고 해서야

대한항공 실세의 '땡공 리턴'이니 하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역설에 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자신들만 모르겠다니 이솝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누가 누구에게 질책하나

문건 유출과 관련, 대통령의 잇단 가이드라인 하명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검찰 수사는 그렇다 치자. "문서 유출은 국가 문란행위", "루머 수준의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것인가.

문건을 만든 이도, 그 대상도 대통령의 수족이고, 문서도 청와대 담을 타고 넘어왔을진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이 해야 할 질책을 흑역사 대통령이 착각한 것은 아닌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곧이 믿을 거라고 오만한 것은 아닌지..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보면 비선 실세 간 인사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데 달리 여지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씨와 가까운 기무사령관이 6개월 만에 바뀌고, 국정원 간부 인사가 오락가락한 것도, 당시 이정한 홍보수석이 물러난 것도 '오십불 백보'라 할 수 있다.

역대 정권 중 박근혜 정부가 유독 인사 실패로 국정에 발목을 잡힌 것도 이

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국민이요, 인사로만 좁힌다면 호남이다.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이정한 의원까지 '근본 없는 놈' 취급을 당하는 마당에 장·차관급 내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넘본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 내 국장급 이상 호남 출신의 씨가 말라간다는 것도 우려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항공 오너 딸의 '땡공 갑질'도 '기네스' 갑이다. 국민적 분노는 물론이고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태어날 때 금팔찌를 끼고 나온 재벌의 딸이 '은팔찌'를 차게 됐으니 아이러니다. 매사가 그렇듯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백에 부딪히게 돼 있는 법이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벌써부터 이념 간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베 등 일부 극우 세력들은 현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을 향해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 따위의 막말까지 하고 나섰다. 불일테가 없어서 또 전라도라니 황당하다.

정부 여당의 아전인수 식 '공안몰이'도 가열될 조짐이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가 부정되거나 위축된다면 그 또한 불행이다. 다양성이 인정되고 진보와

보수가 상호 경쟁하며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성숙된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달 초 타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납양공업의 작태 역시 공분의 대상이다. 경기도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라도 출신은 안 된다'고 명시했다니 이게 가당한 일인가. 이는 호남에 대한 정신적 테러이자 명백한 차별행위다. 납양공업은 망해야 하고, 그건 현대·기아차가 납품을 철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올 한 해 유독 분노를 자아냈던, 분노가 '국민감정'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 교수들이 금년을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꼽은 것도 우리들의 '민낯'에 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고 있으니.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는 연말, 연탄의 따뜻함은 서민의 단란방에도, 우리의 추억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너에게 묻는다)

이제 이제 후면 암울한 한해를 마감한다. 그래도 새해 희망은 있다. 그 길은 아전인수가 아닌 역사사지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면 거짓에 거짓을 날게 될 뿐이다.

은편칼럼



서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세계의 롤모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희망하며

게 한 대형사건이 있었다. 세월호 침몰사고다. 지금도 잊지 못할,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사고다. 전국민을 슬픔과 우울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 후유증은 오랫동안 지속될 듯하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필자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특히 5월이 되면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는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아픔'이 있다.

1980년 5월, 당시 14세 어린소녀였던 필자는 고등학교인 오빠가 며칠 동안 행방불명되자 온 가족이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현장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다. 시내버스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피켓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무장한 공수부대와 경찰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총칼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들, 퇴근길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시신 앞 에 울부짖던 친구 가족들, 새벽까지 들려오는 비명과 헬기소리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날의 광주는 두려움과 공포 그대로였다. 필자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온 수

많은 광주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아픔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난 2012년 8월, 5·18피해자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열었다. 광주시는 직영으로 3년간 트라우마센터를 시범운영하다가 내년까지 1년 더 시범사업을 연장한 상태다.

최근에는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수탁신청기관이 없자 다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15년에는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직영을 탈피하기 위한 시간이 여야 한다고 보고, 지난 2월에 광주시에서 광역정신건강센터(3개의 센터)에 대해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했었다.

연구용역보고서는 첫 번째로, 광역정신건강과 자살예방센터를 하나로 묶고 트라우마센터는 독립해서 운영하자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앞으로 광주시는 운영에 관해서는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준비해나가기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1년의 시범사업기간동안 사업을 잘 추진하면서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법인 설립을 위한 TF팀을 꾸리든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치유하기 위해 생긴 트라우마센터에 대해 국가 보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계속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트라우마센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전문성, 자율성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치유와 재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집중할 수 있도록 항구적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타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이제 그만 인간중심 교육으로 돌아가자

누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집과 씨름하며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느라 학교에 남아 야근하는 날이면, 교강실에 앉아 별별 생각을 다 해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저 짐 많고 무한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오로지 점수 따기 위한 공부를 이 시간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구실을 못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인가. 운이 좋아 공부를 남보다 잘하고, 경쟁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과 명예를 두 손에 쥐었다 치자. 그때 저 아이들은 스스로를 과연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연방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부질없는 상상 하나를 떠올려 본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현안을 의논하곤 하는데, 저 짠하고 불쌍한 아이들 생각해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만 배우고, 야간자율학습은 일체 불허하기로 한다.' 또는 '입시위험성의 기분을 일러주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배우게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아니야, 아니야. 연방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부질없는 상상 하나를 떠올려 본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현안을 의논하곤 하는데, 저 짠하고 불쌍한 아이들 생각해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만 배우고, 야간자율학습은 일체 불허하기로 한다.' 또는 '입시위험성의 기분을 일러주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배우게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육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대국 민선언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려한다면, 무한경쟁의 입시지옥에 갇혀 자유롭게 꿈꿀 수조차 없는 저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길러져 온전한 사회적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온갖 사회불안을 야기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교육, 사람이 중심인 교육으로 돌아가서 바른 인간을 키워내는 일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학교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차분히 하루 생활을 반성하는 가운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며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저녁시간이면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부모는 자식들에게서 바람직한 기분을 일러주고, 자식들은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며

웃음꽃 피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또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 의미 있는 체험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 분단든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의 텃밭이나 화단을 손수 가꾸어 보면서 노작의 기쁨과 자연의 고마움을 깨닫는 일 등은, 어쩌면 한 인간의 바른 성장에 있어 교과공부를 하는 일보다 훨씬 배 더 중요한 일일 터인데 지금의 아이들은 꿈도 사랑도 잃어버린 채 오직 공부벌레로만 살아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일도 좋지 않지만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일류대학을 많이 집어넣어 가문의 영광과 개인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일도 좋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울곧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키우는 학교가 많아져야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학교가 아이들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그 영혼을 고사시키고 꿈을 죽이는 곳이어야 되겠는가. 이제라도 인간중심 교육으로 돌아가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불행의 수렁에 갇힌 아이들을 살려오면 한다.

社說

금호타이어 회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23일 금호타이어에 대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 종료를 승인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기간 부채율이 2010년 858%에서 290%로 낮아졌고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높아진 점을 들어 워크아웃 종료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기점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분규에도 오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노조와의 지지부진한 임단협이 걸림돌이다. 노조가 현재 파업을 결의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타결을 이룰 지 미지수다.

타상행정의 '극치' 광주 서방지하상가

추진과 중단, 재추진의 우여곡절을 겪은 광주 서방지하상가 사업이 또다시 '없던 일'로 중단되고 말았다.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공사구간의 광케이블 매설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책상에서 청사진만 그렸다가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타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은 지난 1995년 민간투자 공모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된 뒤 착공 2년만인 1999년 시공사의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중단됐다. 당시 공정을 31%에서 사업을 접었다. 이후 붕괴 방지·보수공사만 해오다 2012년 지하에 LED(발광다이오드) 식물 재배공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22일 식물 재배시설과 전시공간을 조성하기로 민간 기업과 맺었던 협약을 해지했다. 지하에 대량으로 매설된 광케이블 이설비 21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지금 확보도 관건이다. 금호타이어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이 보유한 42%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찾아와야 하지만 현재 박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7.9%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지분 인수건도 함께 걸려 있어 비용 조달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채권단 보유 지분을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채권단이 보유 지분 매도 시기나 방법 등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이상 시공간적 여유는 있다. 또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경영권 확보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임단협 타결 여부다.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도시공사 회장이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협상과 양보를 통해 파국만을 막아야 한다. 노사가 똘똘 뭉쳐야만 워크아웃 종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서방지하상가 조성사업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계획을 세우면서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여 당시 전체 조성 예정 상가 218동 가운데 겨우 3동만 분양됐다. 시공사는 자금난에 사업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 됐다. 공사기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으며 주변상가는 매출 60% 추락의 피해까지 입었다.

2차 식물 재배공장 추진 계획도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지하에 광케이블이 대량으로 매설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다.

물론 서방지하상가 사업을 아예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다. 투입비용에 비해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활용방안이 있다면 다시 추진해야 한다. 다만 더이상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진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無等鼓

인상과 화가들의 그림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영화 한 편을 후원, 제작했는데 바로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여름의 조각들(Summer Hours)'(2008)이다.

배경은 프랑스의 한 시골이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어머니 엘렌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된 삼 남매가 시골집으로 찾아온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이 집에는 인상파 그림을 비롯해 아르누보의 거장이 만든 책상, 도자기 등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벽에 걸려 리거나 바닥에 놓여있

그림과 가구들이 미술관이라는 '감옥'에 갇힌 듯한 어색함과 서운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 아내가 안쓰러운 듯 말한다. "많은 사람이 보고, 좋잖아?"

강대국으로서 수많은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미술관 입장에서야 '아정정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터다. 하지만, 예술품이 원래 지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미술관에 전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강대국이 강

엘긴 마블

탈해간 문화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영국박물관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조각물인 '엘긴 마블'을 러시아 박물관에 임대하자 그리스 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 좋은 사례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 신전과 동일체로서 해체나 임대, 양도될 수 없는 대상"이라며 흠칫한 유물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전세계 열강들이 강탈해간 우리 문화재들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빼앗긴 우리 문화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publication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